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8호 【우계 제25191호】 주제 105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밝은 앞날을 기약해준 세계사적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대성공적인 발사와 같은 특대사 변들이 련이어 일어남으로써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조국강산에 세차게 굽어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란생 일흔네돐을 성대히 경축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거베의 갈망속에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조선의 대동운이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훈에 들어서시였다.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 궁전은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천만가지 국사를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하나감으로 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쟁취하시면서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 단결이 있고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노도쳐 진군해나가는 위대한 고 강대한 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과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